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사회적 자본 및 문화변용스트레스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전병주*

The Effects of Social Capital and Acculturation Stress on School Adaptation of Adolescents of Multi-cultural Family

Byeong-Joo Jeon*

요약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 청소년 185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사회적 자본과 문화변용스트레스 수준을 측정하고 이것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들의 사회적 자본 수준을 측정한 결과 그 평균이 2.24(SD=.32)로 나타나 보통수준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들의 문화변용스트레스는 2.54(SD=.58)로 나타나 보통수준보다 조금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조사대상자의 학교적응 수준은 2.26(SD=.39)로 조사되어 보통수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년, 학업수준, 경제수준, 동거부모 형태, 모 한국어 능력 등에 따라 학교적응은 집단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조사대상자의 사회적 자본의 네트워크($\beta = .225$), 모 한국어능력($\beta = .195$), 문화변용스트레스($\beta = -.175$), 사회적 자본의 대인신뢰($\beta = .171$) 및 규범($\beta = .161$), 동거부모 형태($\beta = .156$), 학업수준($\beta = .151$), 경제수준($\beta = .145$) 등의 순서로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정보통신의 적극적으로 활용으로 다양한 집단의 참여와 교류를 유도하고 대인간의 신뢰구축 및 네트워크 형성을 도모하며,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용하여 다문화수용성을 제고하는 등의 방안을 제언하였다.

주제어 : 다문화가족 청소년, 사회적 자본, 문화변용스트레스, 학교적응, 다문화수용성

Abstract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185 adolescents in multi-cultural family to measure the level of their social capital and their acculturation stress and examined how it affects them to adapt to school. Followings are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First, after measuring the social capital level of those surveyed, their average was lower than the normal level, showing 2.24(SD=.32), and their acculturation stress showed 2.54(SD=.58), a bit higher than the normal level. Second, their level of adapting to school showed 2.26(SD=.39), which was lower than the normal level, and there was statistically a meaningful difference between the groups depending on their grade, academic level, economic level, parents' marital status, mother's Korean ability. Third, the factors that affected in adapting to school were in the order of their network of social capital($\beta = .225$), mother's Korean ability($\beta = .195$), acculturation stress($\beta = -.175$), interpersonal trust of social capital($\beta = .171$), norm of social capital($\beta = .161$), parents' marital status($\beta = .156$), academic level($\beta = .151$), economic level($\beta = .145$).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suggest ways to promote trust building among people and network formation through active use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to improve multi-cultural acceptability by developing and using various contents.

Key Words : multi-cultural family adolescents, social capital, acculturation stress, school adaptation, multicultural acceptability

*충북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논문접수: 2012년 10월 11일, 1차 수정을 거쳐, 심사완료: 2012년 11월 14일

1. 서 론

한국사회는 결혼이주여성, 외국인 노동자 등의 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140만명을 넘어섰고, 이것은 우리나라 인구의 2%를 상회하는 것이다. 더욱이 외국인과의 혼인이 증가하면서 국제결혼이 29,762건에 이르러 전체 혼인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치는 2000년과 비교하여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31]. 이와 같이 인구사회학적 환경이 변하면서 다문화가족의 청소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는데 2011년 기준으로 초·중·고등학교에 38,678명이 재학 중으로 전체 재학생의 0.55%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2010년의 30,040명과 비교하여 약 28.7% 증가한 것으로 다문화가족의 청소년에 대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05년과 비교하면 약 6.0배 증가한 것이다[2]. 최근에 우리나라의 학령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지만, 결혼이주 1세대의 정주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학령기 자녀가 2014년에는 초·중·고등학생의 1.12%로 예상되는[3] 등 당분간 이들의 증가는 지속될 것으로 보여서 이들에 대한 교육적 차원의 적절한 지원과 관심을 집중하여 학교적응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에게 있어 학교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며, 인격형성을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규범과 역할을 습득하는 장소로서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바르게 적응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는 역할을 한다[24][35]. 또한 또래집단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사회에 동화되고 적응하여 사회에 통합할 수 있는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므로 [11][22] 청소년에게 있어 학교적응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적절한 학교적응 여부는 그들에게 행복의 척도가 되며, 나아가 성인의 삶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청소년에게 있어 학교생활은 그들 생활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10].

물론 학교적응의 개념에 대하여 정의하는 학자마다 다르지만 학업성취와 학습노력을 포함한 학업적 적응과 사회·정서적 적응 및 대인관계 형성, 학교에 대한 태도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어서 결국 학교적응은 청소년의 주요발달의 장인 학교에서 청소년들이 친구 및 교사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학생으로서 수행하는 책임인 학업을 이행하며, 학교에 소속감을 갖고 능동적으로 생활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10][22].

그러나 다문화가족의 청소년들은 한국어가 미숙한 어머니와 함께 생활함에 따라 언어발달이 지체되어 의사소통에 제한을 받고, 이것이 학습부진으로 이어지며, 가정의 경제적·사회적 여건이 전반적으로 열악하고 가정해체 비율이 일반가정보다 높은 이유 등으로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한다[8][21][33]. 또한 다문화가족의 청소년들은 부모의 이중문화 속에서 자신에 대한 정체성 혼란과 한국사회의 타문화에 대한 강한 배타성으로 차별과 편견을 당하며 문화적응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서 이중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6][13][18]. 더욱이 한국사회는 혈통주의에 입각한 단일민족에 대한 긍지가 높아 다양성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라서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이 학교적응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12]. 이러한 어려움은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의 학업중단에도 영향을 미쳐 이들 중에서 초등학생 0.4%와 중학생 1.6%가 학업을 중단하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 초등학생의 0.3%와 중학생 0.8%보다 더 높게 발생하고 있어서[2] 중앙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의 학교적응을 도모하기 위한 여러 정책과 지원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의 원활한 학교적응을 위해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정책과 지원 마련이 더욱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다문화가족의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형태의 어려움을 단일요인으로 극복하기는 어려우며, 여기에는 경제적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등 복합적인 방안을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이 필요하다.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의 학교적응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들의 자아발달과 학업성취를 향상하고, 전반적인 대인관계형성을 도모하며,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나 상황을 대처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주기 위한 사회 전반적인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므로[1] 이를 위하여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지금까지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학교적응과 관련한 연구는 개인특성 및 가족·교사·또래관계 등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으며, 그들의 주변, 지역 환경과의 관계 및 그에 따른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으로 진행되었다. 학교적응은 개인만의 문제도 아니며 특정분야의 지원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가정 및 학교, 사회에서는 이들에 대한 다각적인 사회적 자본의 확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자본에 대해서는 20세기 중반에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면서 사회학, 정치학, 경제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를 중심으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회의 다양한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핵심개념으로 여기고 있지만 다의적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일의적으로 개념화하기는 쉽지 않다[14]. 다양한 개념 정의에서도 사회적 자본에 대한 공통적인 내용은 행위자들 간에 발생하는 사회적 상호관계에 기초하여 오랜 시간 동안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원으로서의 의미를 지니며, 사회구조 내에서 구성원들의 특정행위를 유도·촉진하는 기제로 사회적 자본을 설명한다[27][38]. 더욱이 사회적 자본은 다양하고 가변적인 성격으로 그 측정이 쉽지 않으나 지식기반사회에서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인적·물적 자본과 더불어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34]. 사회적 자본은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구성원들 간의 관계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는 사회적 자원으로 그들에게 공동의 행동 규범 및 정체성을 부여함으로써 사회질서를 조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한편으로 인간과 사회의 조화로운 삶과 상호간의 협력을 통한 사회연대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인제 집단에서의 적응을 도모할 때 의미가 있는 관점이라 할 수 있다[4][41]. 결국 이러한 여러 요인에 의하여 구성된 사회적 자본은 그 집단 내지는 환경 내 다차원적인 요인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과 집단의 적응을 설명하는 유용한 틀을 제공하는데 의의를 가질 수 있다[5][25].

사회적 자본의 측정 요소는 연구관점과 목적,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양한 견해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요인에는 규범(norm)과 신뢰(trust), 네트워크(network)라고 할 수 있다[7][36][41]. 다양한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인 중에서 우선 규범은 개인의 이기심을 규제하며 구성원이 집단목표와 질서에 수렴하여 행동하도록 하며, 규범의식은 사회적 지원과 기대 내지는 명예 등에 의해 강화됨으로써 바람직한 집단 내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사회자본이 된다[38]. 그리고 신뢰는 광범위한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인 동시에 사회적 자본의 결과로 이해되기도 하며, 신뢰를 통해서 보편적인 규범에 기초하여 협력적인 행동과 집단 내 적응을 기대하며, 사회가 유지·발전하는데 필수적 요소라 할 수 있다[7]. 또한 공동체 활동에 대한 참여와 공동체내 다른 구성원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사회

관계 내에서 연계 구조를 가지고 전반적인 사회구조를 안정적으로 구성하게 된다[16]. 이러한 사회적 자본의 적극적 역할을 통하여 청소년을 둘러싼 다양하고 다체계적인 환경과의 적절한 관계형성 속에서 그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학교적응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문화가족의 증가는 한국사회도 상이한 두 문화의 접촉에 따라 해당 문화들이 변화하는 현상인 문화변용(acculturation)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이민자, 이주노동자 또는 소수집단이 존재하는 사회라면 경험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며, 소수자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들 역시 낮은 지위와 취약한 사회적 환경으로 기존 문화로의 동화를 강요받게 된다[13][23]. 일반 청소년들과 비교하여 그들은 외모적 차이와 의사소통의 불완전으로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며, 문화변용에 기인한 어려움까지 경험하게 된다[15][42].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문화변용스트레스는 학교적응의 어려움을 초래하고, 우울 등의 정신적 문제를 초래하는 등의 다양한 사회적 부적응 행동과 산물로 이어지므로[43] 이들의 스트레스를 경감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결국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은 사회적 약자로서 소수집단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그들에게 다양한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고 이질적인 문화에 대해 좀 더 적응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사회적 자본과 문화변용스트레스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그들의 학교적응을 향상하고, 미래 국가의 성장동력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모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학교적응은 차이가 있는가?

둘째,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사회적 자본 및 문화변용스트레스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경기 및 충남·북 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청소년들이다. 본 연구의 자료를 수

집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교육지원청 및 다문화가족지원 센터, 학교 등을 방문하여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의 질문에 대한 이해도를 점검하고 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결과를 토대로 설문을 수정하여 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문항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경우에는 직접 설명해 주는 방식으로 조사의 정확도를 제고하였다. 설문지는 총 200부를 배포하였고, 응답이 불성실한 것을 제외한 185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2.2 연구도구

2.2.1 사회적 자본

사회적 자본의 측정을 위해 조남익·이광호(2009)[29]가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대인 및 제도신뢰, 규범, 네트워크 등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4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하위요인의 응답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4점까지의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의 합이 높을수록 인식하는 사회적 자본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의 Cronbach’s α 는 .72로 나타났다.

2.2.2 문화변용스트레스

본 연구에서 다문화가족의 청소년들이 문화변용 과정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서 Hovey & King(1996)[40]이 개발한 SAFE(Social, Attitudinal, Familial and Environmental 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Adolescents) 척도를 이상균 외(2012)[23]이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4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하위요인의 응답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4점까지의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의 합이 높을수록 문화변용스트레스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상균 외(2012)[23]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의 Cronbach’s α 는 .84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79이었다.

2.2.3 학교적응

학교적응은 이규미·김명식(2008)[22]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학교공부, 학교생활, 친구관계, 교사관계 등의 4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38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하위요인의 응답범주는 ‘전

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4점까지의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의 합이 높을수록 학교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척도에 대하여 이규미·김명식(2008)[22]의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93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69이었다.

이와 같이 본 연구를 위해 사용한 척도의 내적 일관성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2.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서 PASW Statistics 18.0을 이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사회적 자본 및 문화변용스트레스, 학교적응 수준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를 실시하였고, 각 집단별 학교적응 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t-test와 ANOVA검증을 하였다. 그리고 관련 변인들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학교적응에 미치는 요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주요 특성

본 연구를 위한 조사대상자 185명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조사대상자들은 초등학교 4~6학년 97명(52.4%), 중학교 1~3학년 88명(47.6%)이었으며, 성별은 여학생 104명(56.2%), 남학생 81명(43.8%)이었다. 이들은 군 지역에서 109명(58.9%), 시 지역에서 76명(41.1%)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지난 기말고사에서의 학급 평균점수와 비교하여 자신의 점수가 더 높았던 학생은 42명(22.7%)이었고, 낮았던 학생은 143명(77.3%)이었다. 조사대상자들이 인식하는 경제수준은 ‘매우 가난하다’라고 응답한 집단이 31명(16.8%)이었고, ‘가난하다’ 72명(38.9%), ‘대체로 잘 산다’와 ‘매우 잘 산다’가 각각 75명(40.5%), 7명(3.8%)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족형태를 살펴보기 위해서 청소년과 생활하는 부모형태를 조사해본 결과 두 분이 ‘함께 살고 있다’라고 응답한 학생이 93명(50.3%)이었고, 두 분이 이혼한 경우가 32명(17.3%), 별거중인 경우가 35명(18.9%), 한 분이 사망하거나 일 때문에 따로 거주하는 등의 기타 경우가 25명(13.5%)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들의 모 출신국은 중국 한국계가 37명(20.0%)으로

가장 많았으며, 베트남 35명(18.9%), 중국 31명(16.8%), 일본 25명(13.5%), 필리핀 23명(12.4%), 몽골 등의 기타 국가가 34명(18.4%)이었다. 조사대상자들의 모 한국어능력은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63명(34.1%)로 가장 많았고, ‘전혀 못 한다’ 30명(16.2%), ‘대체로 못 한다’ 26명(14.1%), ‘대체로 잘 한다’ 42명(22.7%), ‘매우 잘 한다’ 24명(13.0%)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요인	구분	빈도	%
성별	여	104	56.2
	남	81	43.8
학년	초등학생(4~6학년)	97	52.4
	중학생(1~3학년)	88	47.6
거주 지역	군 지역	109	58.9
	시 지역	76	41.1
학업 수준	학급 평균점수 이하	143	77.3
	학급 평균점수 이상	42	22.7
경제 수준	매우 가난하다	31	16.8
	대체로 가난하다	72	38.9
	대체로 잘 산다	75	40.5
	매우 잘 산다	7	3.8
동거 부모 형태	함께 사신다	93	50.3
	별거	35	18.9
	이혼	32	17.3
	기타	25	13.5
모 출신국	일본	25	13.5
	중국(한국계)	37	20.0
	중국	31	16.8
	베트남	35	18.9
	필리핀	23	12.4
	기타	34	18.4
모 한국어 능력	전혀 못 한다	30	16.2
	대체로 못 한다	26	14.1
	보통이다	63	34.1
	대체로 잘 한다	42	22.7
	매우 잘 한다	24	13.0

3.2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의 사회적 자본 및 문화변용스트레스, 학교적응 수준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조사대상자들의 사회적 자본 평균은 2.24(SD=.32)이었으며, 각 하위요인의 수준은 규범영역이 2.37(SD=.46)로 가장 높았고, 제도신뢰 2.27(SD=.66), 대인신뢰 2.17(SD=.61), 네트워크 2.15(SD=.53)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의 문화변용스트레스는 2.54(SD=.58)이었으며, 학교적응 수준은 2.26(SD=.39)로 나타났다.

〈표 2〉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사회적 자본	규범	2.37	.46	1.25	4.00
	대인신뢰	2.17	.61	1.00	3.75
	제도신뢰	2.27	.66	1.00	4.00
	네트워크	2.15	.53	1.00	3.75
	전체	2.24	.32	1.31	3.19
문화변용스트레스	2.54	.58	1.50	3.75	
학교적응	2.26	.39	1.55	3.63	

그리고 조사대상자들의 학교적응 수준이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F검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에서 학년(p<.01), 학업수준(p<.001), 경제수준(p<.01), 동거부모 형태(p<.001), 모 한국어 능력(p<.05)에 따라 학교적응 수준은 통계적으로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적응에 대하여 각 집단별로 살펴보면 우선 학년에 따라서는 초등학생은 2.34(SD=.43), 중학생은 2.17(SD=.31)이었으며, 지난 기말고사에서의 학급평균 점수보다 높은 집단의 학교적응은 2.45(SD=.50), 낮은 집단의 학교적응은 2.20(SD=.33)으로 나타났다. 그들이 인식하는 경제수준에 따른 학교적응은 ‘대체로 잘 산다(매우 잘 산다 포함)’라고 응답한 집단이 2.50(SD=.51)으로 가장 높았고, ‘매우 가난하다’라고 응답한 집단은 2.24(SD=.36), ‘대체로 가난하다’라고 응답한 집단은 2.19(SD=.32)이었다.

〈표 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집단별 학교적응 차이

요인	구분	평균	표준편차	t/F
성별	여	2.27	.390	.543
	남	2.24	.379	
학년	초등학생(5~6학년)	2.34	.437	3.004**
	중학생(1~3학년)	2.17	.316	
거주 지역	군 지역	2.28	.397	1.100
	시 지역	2.22	.386	
학업 수준	학급 평균점수 이하	2.20	.332	-3.793***
	학급 평균점수 이상	2.45	.508	
경제 수준	매우 가난하다(a)	2.24	.369	7.569**
	대체로 가난하다(a)	2.19	.326	
	대체로(매우) 잘 산다(b)	2.50	.512	
동거 부모 형태	함께 사신다(b)	2.38	.414	8.361***
	별거(a)	2.09	.243	
	이혼(a)	2.08	.379	
	기타(ab)	2.24	.331	
모 한국어 능력	전혀 못한다(a)	2.11	.412	2.791*
	대체로 못한다(ab)	2.21	.330	
	보통이다(ab)	2.24	.336	
	대체로 잘한다(ab)	2.32	.445	
	매우 잘한다(b)	2.44	.416	

*p<.05, **p<.01, ***p<.001

또한 청소년과 양부모가 함께 생활하는 집단에서의 학교적응은 2.38(SD=.41)이었고,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2.09(SD=.37), 한 명이 사망하거나 직장 때문에 따로 살고 있는 경우 등의 기타는 2.24(SD=.33)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의 한국어능력에 따른 학교적응은 한국어를 '매우 잘 한다' 집단에서 2.44(SD=.41)로 가장 높았으며, '대체로 잘 한다' 2.32(SD=.44), '보통이다' 2.24(SD=.33), '대체로 못 한다' 2.21(SD=.33), '전혀 못 한다' 2.11(SD=.41)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조사대상자의 성별이나 거주지역에 따른 학교적응은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3.3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

조사대상자들의 사회적 자본 및 문화변용스트레스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우선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표 4>과 같다. 학업수준($r=.270, p<.01$), 경제수준($r=.174, p<.05$), 동거부모 형태($r=.298, p<.01$), 모 한국어 능력($r=.236, p<.01$), 사회적 자본의 하위요인 즉, 규범($r=.218, p<.01$), 대인신뢰($r=.322, p<.01$), 제도신뢰($r=.187, p<.05$), 네트워크($r=.362, p<.01$) 등은 학교적응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년($r=-.217, p<.01$)과 문화변용스트레스($r=-.323, p<.01$) 등은 학교적응과 부적인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3.4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의 사회적 자본 및 문화변용스트레스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한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5>와 같다. 모델 I에서는 조사대상자들의 성별, 학년, 거주 지역, 학업수준, 경제수준, 동거부모 형태, 모 한국어 능력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변수들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모델 II에서는 모델 I에 사회적 자본 요인이 규범, 대인 및 제도신뢰, 네트워크 등을 추가적으로 투입하였다. 마지막으로 모델 III에서는 모델 II에 문화변용스트레스를 추가

적으로 투입하여 학교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각 변수들간의 다중공선성 발생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VIF(Variance Inflation Factor)값을 확인한 결과 1.057~1.324인 것으로 나타나 각 변수들간에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먼저 모델 I에서는 조사대상자들의 학업수준($p<.001$) 경제수준($p<.01$), 동거부모 형태($p<.001$), 모 한국어능력($p<.001$) 등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모델의 설명력은 22.8%로 나타났다. 모델 II에서는 조사대상자의 학업수준($p<.05$), 경제수준 ($p<.05$), 동거부모 형태 ($p<.01$), 모 한국어능력($p<.001$), 사회적 자본의 하위요인 중에서 규범($p<.01$), 대인신뢰($p<.01$), 네트워크($p<.001$) 등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모델의 설명력은 모델 I에서 14.2% 증가한 36.1%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모델 III에서는 조사대상자의 학업수준($p<.05$), 경제수준($p<.05$), 동거부모 형태($p<.05$), 모 한국어능력($p<.01$), 사회적 자본의 하위요인에서 규범($p<.01$), 대인신뢰($p<.01$), 네트워크($p<.001$), 문화변용스트레스($p<.01$) 등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즉 조사대상자의 사회적 자본의 네트워크($\beta=.225$), 모 한국어능력($\beta=.195$), 문화변용스트레스($\beta=-.175$), 사회적 자본의 대인신뢰($\beta=.171$)와 규범($\beta=.161$), 동거부모 형태($\beta=.156$), 학업수준($\beta=.151$), 경제수준($\beta=.145$) 순서로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모델의 설명력은 모델 II에 비해 2.7% 증가한 38.7%로 나타났다($F=10.670, p<.001$).

4. 결론

본 연구는 경기 및 충남·북 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185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사회적 자본과 문화변용스트레스 수준을 측정하고 이것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들의 사회적 자본 수준을 측정한

<표 4>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

	성별	학년	지역	학업수준	경제수준	동거부모 형태	모한국어 능력	사회적 자본				문화 변용
								규범	대인신뢰	제도신뢰	네트워크	
학교 적응	-.040	-.217**	-.081	.270**	.174*	.298**	.236**	.218**	.322**	.187*	.362**	-.323**

* $p<.05$, ** $p<.01$

〈표 5〉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구분	모델 I				모델 II				모델 III			
	B	β	t	VIF	B	β	t	VIF	B	β	t	VIF
성별	.013	.016	.242	1.057	-.006	-.007	-.116	1.081	.016	.021	.342	1.109
학년	-.066	-.084	-1.225	1.127	-.089	-.113	-1.794	1.147	-.085	-.108	-1.744	1.148
지역	-.009	-.011	-.155	1.298	-.011	-.014	-.200	1.324	-.012	-.015	-.230	1.324
학업수준	.225	.241	3.613***	1.059	.143	.153	2.457*	1.120	.141	.151	2.468*	1.120
경제수준	.117	.212	2.984**	1.205	.085	.155	2.347*	1.254	.080	.145	2.237*	1.258
동거부모형태	.209	.267	3.901***	1.114	.133	.170	2.622**	1.205	.122	.156	2.449*	1.212
모 한국어능력	.078	.245	3.671***	1.062	.070	.218	3.561***	1.082	.062	.195	3.225**	1.102
사회자본					.149	.175	2.835**	1.103	.137	.161	2.649**	1.110
규범					.125	.196	3.141**	1.126	.109	.171	2.764**	1.150
대인신뢰					.069	.116	1.891	1.085	.051	.086	1.403	1.119
제도신뢰					.161	.222	3.457***	1.183	.164	.225	3.585***	1.184
네트워크												
문화변용스트레스									-.117	-.175	-2.851**	1.136
R ²	.258				.400				.427			
수정된 R ²	.228				.361				.387			
R ² 변화량					.142				.027			
F	8.779***				10.469***				10.670***			

주: 성별(여-0, 남-1), 학년(초등학교-1, 중학교-2), 지역(군지역-1, 시지역-2), 학업수준(학급 평균점수 이하-1, 학급 평균점수 이상-2), 동거부모 형태(부모 비동거-1, 부모 동거-2)

*p<.05, **p<.01, ***p<.001

결과 그 평균이 2.24(SD=.32)로 나타나 보통수준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사회적 자본 하위요인의 평균에 대하여 각각 살펴보면 규범이 2.37(SD=.46)로 가장 높았고, 제도신뢰 2.27(SD=.66), 대인신뢰 2.17(SD=.61), 네트워크 2.15(SD=.53)로 나타났다. 반면에 그들의 문화변용스트레스는 2.54(SD=.58)로 나타나 보통수준보다 조금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이 국내의 최근 연구들은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이 문화와 관련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13][23], 은선경(2010)[21]의 연구에서는 이중문화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높게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조사대상자의 학교적응 수준은 2.26(SD=.39)으로 조사되어 보통수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에서 학년(p<.01), 학업수준(p<.001), 경제수준(p<.01), 동거부모 형태(p<.001), 모 한국어능력(p<.05) 등에 따라 학교적응은 집단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성별이나 거주지역과 관련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초등학교보다 중학교에서의 학교적응이 다소 낮아졌는데 이것은 유순화(2007)[19], 이희정·조운주(2010)[26] 등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청소년이 양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아닌 이혼 및 별거 등의 가족형태의 경우에는 학교적응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강현주 외(2012)[1]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다만 본 연

구와 안은미(2007)[17]의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학교적응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강현주 외(2012)[1], 이상균 외(2012)[23]의 연구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현영(2006)[28]의 연구에서는 거주지에 따라 학교적응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상이하였다.

셋째, 조사대상자들의 사회적 자본과 문화변용스트레스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투입한 모델 I에서는 학업수준(p<.001), 경제수준(p<.01), 동거부모 형태(p<.001), 모 한국어능력(p<.001) 등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 모델의 설명력은 22.8%로 나타났다. 모델 I에 사회적 자본을 추가적으로 투입한 모델 II에서는 조사대상자의 학업수준(p<.05), 경제수준(p<.05), 동거부모 형태(p<.01), 모 한국어능력(p<.001), 사회적 자본의 하위요인 중에서 규범(p<.01), 대인신뢰(p<.01), 네트워크(p<.001) 등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모델 I에 비해 14.2%의 설명력이 증가하여 모델 II의 설명력은 36.1%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모델 II에 문화변용스트레스 요인을 추가적으로 투입한 모델 III에서는 조사대상자의 학업수준(p<.05), 경제수준(p<.05), 동거부모 형태(p<.05), 모 한국어능력(p<.01), 사회적 자본의 하위요인 중에서 규범

($p < .01$), 대인신뢰($p < .01$) 및 네트워크($p < .001$), 문화변용 스트레스($p < .01$) 등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즉 조사대상자의 사회적 자본의 네트워크($\beta = .225$), 모 한국어능력($\beta = .195$), 문화변용스트레스($\beta = -.175$), 사회적 자본의 대인신뢰($\beta = .171$)와 규범($\beta = .161$), 동거부모 형태($\beta = .156$), 학업수준($\beta = .151$), 경제수준($\beta = .145$) 순서로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모델Ⅲ의 설명력은 모델Ⅱ에 비해 2.7% 증가한 38.7%로 나타났으며, F값이 10.670로 나타나 유의수준 $p < .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 중에서 다문화가족의 청소년이 경험하는 문화변용스트레스가 학교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는 문영희·안은미(2010)[13], 은선경(2010)[21], 이상균 외(2012)[23], Green·Way·Pahl(2006)[39]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동거부모의 형태가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는 강현주 외(2012)[1]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학업수준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유창준 외(2012)[20]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가정의 경제수준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는 강현주 외(2012)[1], Brown et al.(2009)[3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특히 Brown et al.(2009)[37]은 그의 연구에서 가정의 경제수준이 청소년의 진로 선택을 제한하여 학습과 학교적응을 어렵게 한다고 하였으며, 은선경(2010)[21]과 이상균 외(2012)[23]의 연구에서는 경제수준이 학교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의 한국어능력이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문영희·안은미(2010)[13], 이상균 외(2012)[23], 하미화(2009)[32] 등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으나, 정현영(2006)[28]의 연구에서는 모의 한국어 능력이 자녀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학교적응은 단일한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구조가 아니라 관련 요인들이 상호 연관된 구조 속에서 형성되고 영향을 미치므로 학교적응 증진을 위해서는 사회적 자본과 문화변용스트레스, 가족 관련요인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다양한 형태의 활동과 참여에서 형성되는 대인간의 신뢰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문화변용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경감하며,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능력 향상과 더불어 안정적인 가족형태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연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에 기초하여 몇 가지 정책적·실천적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있어 사회적 자본의 네트워크와 대인신뢰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오히려 조사대상자들의 사회적 자본의 네트워크와 대인신뢰는 다른 사회적 자본의 요인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에 대비한 방안이 필요하다. 교내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하고 적극적인 단체 활동을 유도하고, 다양한 집단과의 교류 및 상호작용을 통해서 건강하고 생산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며 긍정적인 네트워크를 도모하여 사회적 자본을 적극적으로 확충해야 할 것이다. 또한 청소년의 특성상 교류할 수 있는 지리적 제한이 있으므로 정보통신 활용으로 전국에 있는 다문화가족의 청소년들과 교류를 확대하여 각각의 상황과 경험에서 습득한 노하우를 전파하고 상호간의 동질감과 유대감을 증대하여 상호존중과 신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문화변용스트레스가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문화적응과정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우리 문화뿐만 아니라 어머니 나라의 문화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화변용스트레스의 주된 원인이라 할 수 있는 사회적 편견과 차별은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으므로[23][30] 그들에게 우리 문화에 대한 일방적인 동화와 이해 요구가 아닌 서로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일반학생과 다문화 배경을 가진 학생들의 상호 교류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청소년들에게 보다 익숙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보급하여 학교에서의 다문화교육 과정에 적극 이용함으로써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며, 다문화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조사대상자의 모 한국어능력이 여러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에서 가장 크게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가족과의 대화 증진 및 사회적 교류의 확대를 통해서 모의 한국어능력을 향상하여야 한다. 또한 모의 한국어능력은 자녀의 학업수준뿐만 아니라 가정의 융화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며[20], 가족의 구조 및 관계적 특성에서 안정적인 가족형태는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므로[9][10] 다문화가족의 해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 가족구조의 안정 속에서 구성원들의 상호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병행적으로 추진하여 어머니 나라의 언어 및 문화

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하며, 결혼이주여성들의 모국어 구사와 기타의 재능기부를 통해서 지역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생산적인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사회적 교류를 통해서 그들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조사대상자가 인식하는 경제수준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다문화가족의 경제적·사회적 여건의 향상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그들에게 지원되는 영역 및 그 정도에서 큰 차이가 있으므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정과 함께 다문화가족의 청소년이 미래의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이 단순한 사회적 재분배 차원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결국 본 연구의 조사결과에서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은 사회적 자본을 보통수준보다 더 낮게 지각하며, 문화변용스트레스가 보통수준보다 조금 더 높게 나타났으므로 다문화가족과 그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원의 확대를 통하여 그들의 생활 안정과 사회의 조기정착을 도모하며, 이런 기반을 바탕으로 대인간 신뢰를 향상하고 학교 및 지역사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폭넓은 네트워크가 형성된다면 그들의 학교적응은 보다 향상될 것이다. 나아가 미래 국가 발전의 주체로서 그들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국내에 정착하는 다양한 배경과 문화를 가진 이주민들에게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지금까지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사회적 자본과 문화변용스트레스, 학교적응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몇 가지 연구결과 및 정책적·실천적 제언을 하였다. 다만 본 연구는 일부 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모든 다문화가족의 청소년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사회적 자본을 개인의 인식이 아닌 지역수준의 거시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여 좀 더 포괄적인 연구를 시도할 필요가 있으며, 문화변용스트레스 및 학교적응이라는 주제는 양적연구뿐만 아니라 심도 있는 질적연구가 함께 이루어진다면 더욱 정확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연구방법은 다음 연구에서 실천해보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 [1] 강현주, 김정화, 최민지(2012). 사회적 자본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4(2), 281-306.
- [2] 교육과학기술부(2012). 교육기본통계.
- [3] 교육과학기술부(2012). 다문화학생 교육 선진화 방안.
- [4] 김선애(2011). 생애주기 관점에서 본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정책의 연계방향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13(3), 117-140.
- [5] 김연희, 김선숙(2008). 사회자본이 아동 우울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연구, 36, 103-127.
- [6] 김영신, 신철균, 김현진(2012).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초등교육연구, 25(2), 161-185.
- [7] 김정훈, 임안나(2010). 결혼이주여성들의 사회적 자본 수준과 증진방안. 현대사회와 행정, 20(3), 51-87.
- [8] 김종백, 탁현주(2011). 교사의 다문화 교육인식과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적응과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8(10), 161-185.
- [9] 김현주, 이해경(2011).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가족과 문화, 23, 77- 104.
- [10] 김혜래, 최승희(2010). 가족건강성과 학교체제요인이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20, 159-182.
- [11] 남상아, 백지숙(2011). 다문화 가정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과 초기 청소년의 학교적응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시설환경학회지, 9(1), 3-12.
- [12] 노충래, 홍진주(2006). 이주노동자 자녀의 한국사회적응실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22, 127-159.
- [13] 문영희, 안은미(2010). 여성결혼이민자 가정 자녀의 이중문화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사회복지학, 33, 47-68.
- [14] 백봉렬(2012).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사회성, 학교적응 유연성이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한영신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15] 심우엽(2009). 다문화학생의 민족정체성 및 정서적 특성. 초등교육연구, 22(4), 27-47.
- [16] 안우환, 김경식(2005). 가족내 사회적 자본을 통한 학부모의 교육열 탐구. 중등교육연구, 53(1), 29-50.
- [17] 안은미(2007). 농어촌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18] 오경환(2011).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한국문화수용성과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9(9), 1-97.

[19] 유순화(2007).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전환에 관한 학생들의 기대와 지각. 초등교육연구, 20(1), 355-375.

[20] 유창준, 김건태, 임상호(2012).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복지서비스에 관한 연구. 디지털정책연구, 10(5), 19-26.

[21] 은선경(2010).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33, 37- 74.

[22] 이규미, 김명식(2008). 중학생 학교적응 척도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5(1), 27-40.

[23] 이상규, 박현선, 노연희, 이채원(2012). 다문화가족 아동의 문화변용스트레스 및 문화자본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38, 235-264.

[24] 이지민(2009).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자아정체감, 청소년의 학교적응 간의 관계구조. 한국생활과학회지, 18(5), 1021-1033.

[25] 이원이, 김동일(2009).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류. 열린교육연구, 17(4), 89-118.

[26] 이희정, 조윤주(2010). 학교적응의 종단적 변화와 예측 변인 탐색. 청소년학 연구, 17(2), 253-278.

[27] 장유미(2011).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가 사회자본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3(2), 261-289.

[28] 정현영(2006).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9] 조남익, 이광호(2009). 청소년 집단활동 참여에 따른 사회적 자본 형성에 관한 구조모형 연구. 청소년시설환경학회지, 7(2), 39-51.

[30] 최혜지(2012). 이주여성의 사회적 배제가 문화변용에 미치는 영향. 사회보장연구, 28(1), 217-244.

[31] 통계청(2012). 인구동향. 서울: 통계청.

[32] 하미화(2009).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33] 한정애(2009).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학교적응과정 분석. 경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34] 홍영란 외(2006). 국가발전을 위한 사회적 자본 형성 전략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35] 홍정미(2008).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변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

원 박사학위 논문.

[36] Alder, P., & Kwon, S. W.(2002). Social capital: Prospect for a new concept. Th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7(1), 17-40.

[37] Brown R., Copeland, W. E., Costello, E. J., & Worthman, C. M.(2009). Family and community influences on educational outcomes among Appalachian youth.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7(7), 795-808.

[38] Coleman, J. S.(1988). Social Capital in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94-121.

[39] Green, M. L., Way, N., & Pahl, K.(2006). Trajectories of perceived adult and peer discrimination among Black, Latino, and Asian American Adolescents. Development Psychology, 42, 218-238.

[40] Hovey, J. D., & King, C, A.(1996). Acculturative stress,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among immigrant and second-generation Latino adolescent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5(9), 1183-1192.

[41] Putnam, R. D.(1993).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42] Romero, A, J. Carvajal, S. C., Valee, F., & Orduna, M.(2007). Adolescent bicultural stress and its impact on mental well-being among Latinos, Asian American, and European American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5(4), 519- 534.

[43] Vinokurov, A., Trickett, E. J., & Birman, D.(2002). Acculturative hassles and immigrant adolescent.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42, 425-445.

전 병 주



- 2002년 8월: 동국대학교 법학과(법학사)
- 2009년 8월: 충북대학교 법학과(법학석사)
- 2012년 2월: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박사과정 수료)
- 관심분야: 사회보장, 보건의료, 장애인

· E-Mail: okbjb@cbnu.ac.kr